

일본 대중목욕탕, 꼭 가봐야 하는 이유

현대 일본의 성인 남녀들이 생각하는 여가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가생활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개인의 취미생활 다음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여행을 즐기겠다는 사람이 많음

□ 일본의 목욕문화

-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일본 사람들에게 목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중 하나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절대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함
 - 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욕조에 몸을 담그며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조에서 몸을 씻는 일은 없음
 - 어디까지나 욕조는 적당하게 데워진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한 곳으로 가족 모두가 한번 데워진 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던 일본사람들이 묵은 호텔의 온수가 동이나 고생했다는 이야기, 일본친구 집에 묵은 외국인이 목욕을 하고 나서 욕조에 물을 빼버려 가족 모두가 다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다는 목욕문화의 차이도 발생함
- 일본에서 목욕은 몸을 씻는 의미를 넘어 오락의 일환으로 우리의 찜질방이 그렇듯이 일본 전역에 수천 개가 넘는 온천이 있음
 - 온천의 종류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목욕을 통해 일본사람들은 친구와 가족과 친목을 다지고 때로는 탕 속에 몸을

담근 채 쟁반 위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함

-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귀족집안에서는 이어나 혼례, 병이 완치되었다든지 신년을 맞았을 때 빠뜨리지 않고 목욕을 했음
-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인 통과의례로서도 목욕은 일본 사람들에게 중요시 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센토우(銭湯 `대중목욕탕)의 유래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형태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각지에 점재하는 이시부로(石風呂)로 자연의 암굴에서 증기욕을 하는 것이었음
-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교토(京都)의 도우다이지(東大寺) 등의 사원에서 욕당(欲堂)과 욕조를 만들어 놓고 철제로 만든 큰 솥에 물을 끓여 목욕했다는 기록이 있음
- 승려와 서민은 심신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목욕을 했으나 때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입욕을 하기도 했음
- 그 후 민간영업으로 목욕이 활용되면서 뜨겁게 달군 돌에 물을 부어 증기를 몸에 뒤집어쓰는 무시부로(蒸し風呂, 증기사우나)가 확산되었음
- *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 하반신은 물에 담그고 상반신은 증기로 몸을 데우는 방식으로 변했으며 이러한 목욕형태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에도(江戸)중기까지 승려와 귀족, 무사들 사이에서 행해졌음
- * 유카다(浴衣)를 입은 유나(湯女)라고 불린 여성이 있는 목욕탕이 있어 그 여성들이 손님의 긴 머리를 빗어주거나 몸을 닦아 주었는데 에도(江戸)시대 초기 관습을 그린 병풍 등을 보면 당시 목욕탕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그 후 문을 자주 열고 닫아 증기가 밖으로 세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구로구치(ざくろ口)라는 출입구가 있는 목욕탕이 등장했음
 - 출입구 위쪽 절반을 판으로 가려 손님은 몸을 굽히고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나 창문이 한두 개밖에 없는 실내에 증기가 가득 차 현기증으로 졸도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함
 - 더욱이 실내가 어둡고 혼욕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장난을 치는 남성들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증기목욕 시대에는 목욕을 즐기는 사람이 알몸이 아니라 목욕용 혼도시(褌, 남성의 음부를 가리기 위한 폭이 좁고 긴 옷감) 혹은 허리에 천을 두르고 입욕했음
- 에도(江戸)시대에는 혼욕 금지령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점차 남녀 각기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센토우가 만들어 졌음
 - 남성용 센토우는 2층으로 만들어져 2층에서는 차와 과자를 먹으며 장기나 바둑을 즐기는 당시 서민의 사교장 역할을 했었음

□ 현대의 센토우

- 최근에는 목욕이 가능한 시설이 대부분 가정에 갖추어져 있고 대중목욕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음
 -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에서 특히 도심에서는 센토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졌음
- 센토우에 가면 우리나라 목욕탕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반다이(番台)라는 곳이 있는데 간혹 이 반다이의 위치가 외국인이 보

면 조금은 애매한 곳에 있는 센토우가 있음

- 반다이카 목욕탕 밖이 아닌 탈의실을 모두 볼 수 있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 위가 뚫린 담으로 남녀 탈의실을 구분해 놓고, 담 끝 쪽 높은 곳에서 남녀 탈의실을 내려다보고 사람이 앉아 있음
- 그곳이 목욕 요금을 받으며 양쪽 탈의실을 관리하는 카운터, 즉 반다이카이며 그곳에 앉은 사람은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가끔 젊은 여성이 앉아 있기도 함
- *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후 3~4시부터 11~12시까지로 새벽부터 문을 여는 우리나라 대중목욕탕과는 대조적이며 지금도 도쿄의 중심가의 사우나에 가면 탕 안에서 때를 밀어주는 사람이 여자인 곳이 있음
- * 일본은 습도가 높아 특히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견디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센토우는 한 여름에도 정상 영업을 함